



폭염 속 우산 쓰고 좌판하는 어르신들 연일 폭염날씨가 이어진 19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어르신들이 우산 그늘 아래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낮 35℃ 제주 첫 폭염경보… 비상1단계

어제 한림 34.9℃ 기록… 당분간 습도 높고 무더위 지속
폭염특보 후 온열질환 23명… 절반 이상 최근 나흘 집중
도 “온열질환 위험… 야외근로자·취약계층·1차산업 대응”

지난 주말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한낮 기온이 35℃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폭염 피해를 대비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귀포시 동부에 폭염경보를 발효했다. 올해 제주에 내려진 첫 폭염경보로, 지난해(6월 29일 제주 동부)보다는 20일 늦은 기록이다.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시 서부·북부·동부·중산간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12시 기준 지점별 최고

기온은 한림 33.3℃, 성산수산 32.4℃, 유수암 31.7℃, 제주 31.5℃, 금악 31.2℃, 제주가시리 30.8℃, 외도 30.4℃ 등이었고, 최고 체감온도는 한림 34.9℃, 성산수산 34.4℃, 제주가시리 33.5℃, 유수암 33.1℃, 제주 33.0℃, 금악 32.8℃, 외도 32.3℃까지 올랐다.

산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기상청은 습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면서 당분간 제주시 서부·북부·동부·중산간에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서귀포시 동부에 35℃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전망했다.

밤 더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시 서부·북부·동부·중산간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며 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는 밤 최저기온이 27℃ 이상, 그 밖의 지역도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으로 유지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34명(제주시 27명, 서귀포시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 수(30명)를 이미 넘어섰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달 6일 이후 발생한 온열질환자만 23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13명)이 이달 15일부터 나흘 동안(15일 4명, 16일 2명, 17일 4명, 18일 3명) 집중 발생했다. 현재까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염이 지속된 지난 주말 제주에선 한낮 공사장과 과수원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열탈진, 열경련 증

상을 보이는 등 온열질환자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2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호흡곤란과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 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으로 쓰러졌고, 16일 오후 4시 32분쯤 에도 제주시 애월읍의 과수원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열경련을 호소해 각각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제주도도 폭염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폭염으로 커지는 온열질환 위험과 농업·수산업·축산업 등 1차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멸종위기종 ‘붉은박쥐’ 다시 만장굴로

탈진 개체 구조·치료 후 방생

심각한 탈진 증세를 보였던 멸종위기종 ‘붉은박쥐’가 무사히 만장굴 품으로 돌아갔다. >>사진

19일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만장굴에서 붉은박쥐 한 마리가 구조됐다. 수일간 만장굴 입구 쪽에 있던 붉은박쥐의 움직임이 약해지자 만장굴 관리소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후 정밀 진료 결과 붉은박쥐에게선 외상이나 골절 등 부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탈진 증세가 심한 상태였다. 이에 센터는 영양주사를 맞히고 먹이를 공급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행히 회복은 빨랐다. 구조 하루 만인 지난 16일, 움직이는 힘과 비행 능력을 회복한 붉은박쥐는 다



시 만장굴로 돌아갔다.

일명 ‘황금박쥐’로 불리는 붉은박쥐는 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희귀종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만장굴은 붉은박쥐의 대표 서식지로 알려진 곳이다. 연중 온도와 습도가 일정해 박쥐가 살기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3년 12월 낙석이 발생하며 폐쇄됐다가 지난 5월에 재개방됐는데, 이후의 변화가 붉은박쥐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지은기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도, 상반기 일제점검 통해 131건 적발·후소 조치

허위·중복 지급, 쪼개기 계약, 회계증빙 미비 등 131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가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수익 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세

금계산서 미발행과 물품수불부 작성 등 회계증빙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제주도는 적발 사항을 사업 부서별 추가조사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템e’가 탐지한 의심사업 중 1000만원 이상 사업과 2025년도 미정산사업 등이 대상이며,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은 8월 중 행정안전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점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조직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이번에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 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감염시 치사율 50% 달해… 주로 여름철 환자 집중

제주 해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읍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겨울철 해저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봄철부터 표층수에서 본격적으로 검출된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해수에 접촉할 경우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수 있다.

사람 간 전파는 이뤄지지 않지만

감염시 치사율이 50%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들어 도내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자가 없는 상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은 감염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공동으로 비브리오균 감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주택용 태양광

지붕부착형 · 주차장형 · 기본형 등
시공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가용 태양광

상가 · 펜션 · 카페 · 식당 · 유치원
카센터 · 게스트하우스 · 교회 · 사찰 등

태양광 발전사업

* 태양광 발전사업은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제품 히트펌프

에너지효율 378%

시공문의 064)721-3909

우리에너지코리아(주)
동문시장 현대약국 앞

☎ 1544 - 4295